



자산전략 주간 포인트 시즌2.

4월 셋째 주 《경제 태세 유지》

SK증권 자산전략부

채권전략. 윤원태 3773-8919, yunwt@sks.co.kr
주식전략. 강재현 3773-9922, jaehyun.kang@sks.co.kr
경제환율. 류진이 3773-9226, jinleecon@sks.co.kr
R.A. 박유진 3773-9938, youjin.park@sks.co.kr
R.A. 원유승 3773-9181, ys.won@sks.co.k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 1 자산시장 Point to Point
- 2 그림으로 보는 Top to Bottom
- 3 주간 Check Point

Compliance Notice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경제/금리 달러-원 환율, 1,400원에서 내려왔지만 물가와 FOMC 기다리며 경제심은 지속될 듯

- 금주 각종 악재가 겹치며 달러-원 환율 1,400원을 찍고 돌아오는 과정 속 증시 전반 혼란 가중
- 이란-이스라엘 갈등 속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안전자산 선호, 유가 반등,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달러 강세
- 다음주 금요일 미국 3월 PCE 물가부터 5월 FOMC까지 매크로 주요 이벤트 다시 대기 중. 이번에 달러-원 상승을 이끌었던 재료들은 대체로 소멸되어가는 과정이지만, 물가와 FOMC 경계감으로 하락 폭은 당분간 제한될 듯
- 금리는 경기 호조와 인플레이션 압력(지정학 리스크 포함) 요인이 반영되며 밴드권 상단을 이탈. 유가의 추가 상승에 제한된 상황에서 시장금리 고금리 매력 부각되며 저가 매수로 접근
- 시장금리는 주중 고점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과거 밴드 수준의 되돌림 가능성은 제한적인 상황. 향후 경기 둔화 매크로 지표가 발표되지 전까지 미국채 10년 기준 4.45~4.65%수준 박스권을 보일 것으로 전망

주식 전략 낮아진 지수 레벨대, 비중 확대의 기회. 그러나 베타까지 높이기엔 아직 위험 남아있음에 유의

- 국내 증시는 위험자산 회피 심리 강화로 외국인 자금 유출되며 2,600선을 하향 이탈하기도 했음. 기술적 매력 높아진 상태에서 위험 소폭 완화되자, 특히 당국이 원/달러 환율 방어에 나서자 외국인 자금 유입되며 강력하게 반등에는 성공
- 증시 업사이드는 여전히 크게 열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의 낮아진 지수 레벨대는 분명히 좋은 매수 기회. 주식 비중을 확대해야 함
- 다만 단기적인 위험 선호 심리가 완전히 회복된 상황은 아님. 당장 달러의 상방 위험이 이미 반영이 상당히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신흥국 환위험이 완전히 안정되지는 않은 상태.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베타를 과도하게 높이기 보다는 일부 방어적인 포지션을 유지한 상태로 시장에 대응해야 하는 구간인 것으로 보임
- 비경기민감 업종 가운데서도 연간 이익 모멘텀은 약하지만 1분기 이익 모멘텀은 양호한 필수소비재, 호텔레저, 화장품 등이 이 대상이 될 수 있음. 특히 그 중에서도 필수소비재는 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 볼 필요



Par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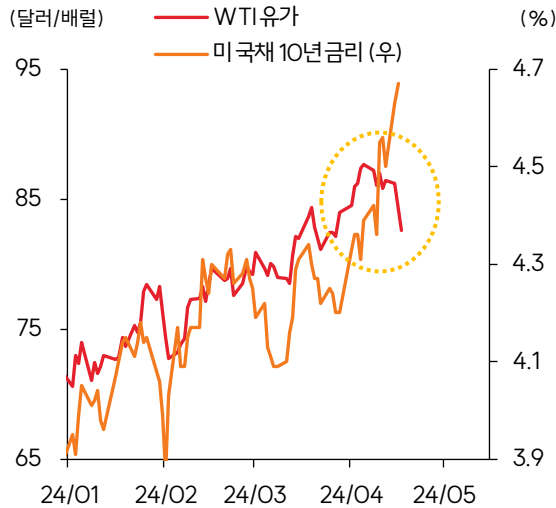
**자산시장
Point to Poin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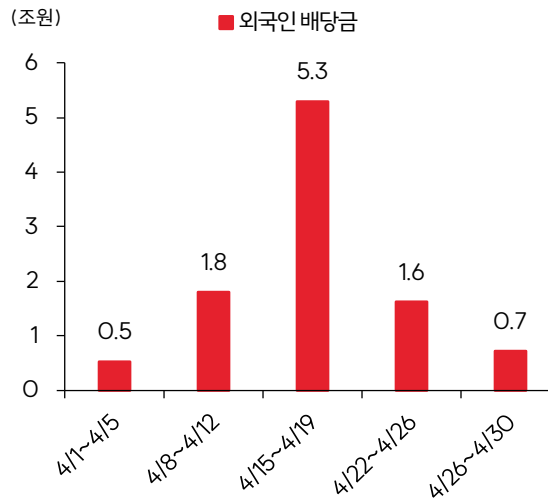
1,400원 보고 온 달러-원, 이제는 한숨 돌리는 구간

- 1,400원 보고 돌아온 달러-원. 다음주 물가 및 FOMC 경계감으로 추가 하락 폭은 제한적일듯
 - 최근 달러-원 상승에는 ①미국 금리 인하 기대 후퇴에 따른 달러 강세에 더해 ②이란-이스라엘 확산 우려, ③중국 인민은행의 환율 절하 고시, 마지막으로 ④4월 외국인 배당금 지급 이슈 등이 함께 작용. 대내외 신용위기 발생했던 2022년과 비교하면 현재 재료들로 1,400원 레벨은 오버슈팅이라고 판단
 - 외국인 배당금 지급 이슈, 중국 인민은행 환율 절하 고시의 영향력은 4월말로 가면서 점차 소멸할 것. 1,400원을 터치하는 데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지정학적 이슈. 안전자산 선호 심리 뿐만 아니라 유가 반등에 따른 미국 금리 인하 관련 불확실성 확대가 원인. 단, 지정학적 리스크 여전함에도 WTI 유가가 86불선에서 강하게 막히면서 해당 경로를 통한 달러-원 상승 압력도 다소 약화될 것으로 판단
 - 다음주 금요일(4/26) 3월 미국 PCE 물가 발표. 연이어 한국시간으로 5월 2일 새벽 FOMC까지 예정. 달러-원 상승 재료들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되었지만, 물가 및 FOMC 경계감으로 환율 하락 폭 크지 않을 것. 1,300원대 후반에서 등락하는 흐름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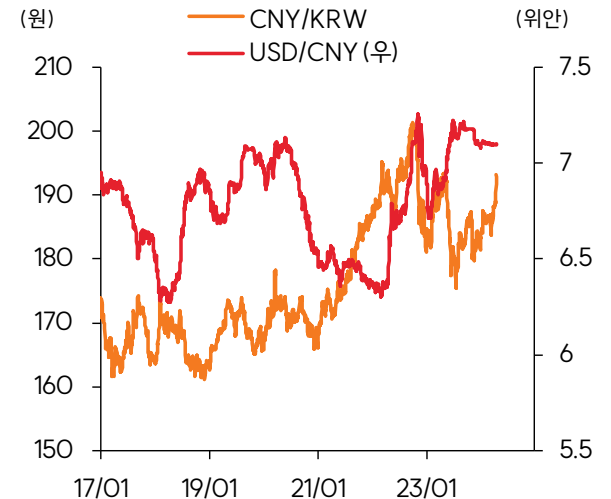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86달러를 넘어서지 못한 유가



4월중 지급되는 외국인 배당금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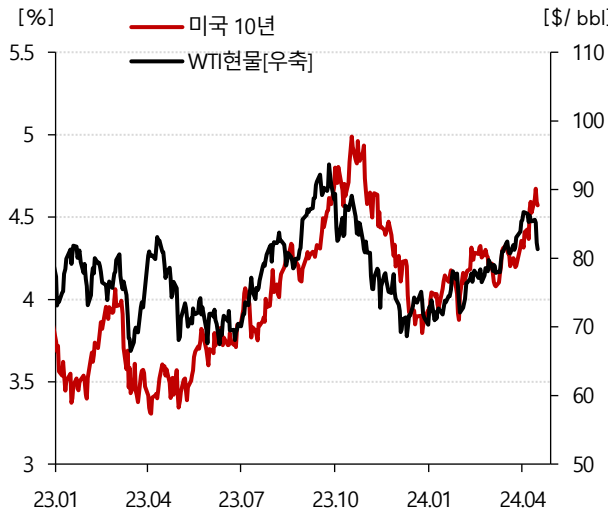
인민은행 고시환율, 2022년 고점에 거의 근접



외국에 의한, 외국인에 의한, 투자자를 위한 매수 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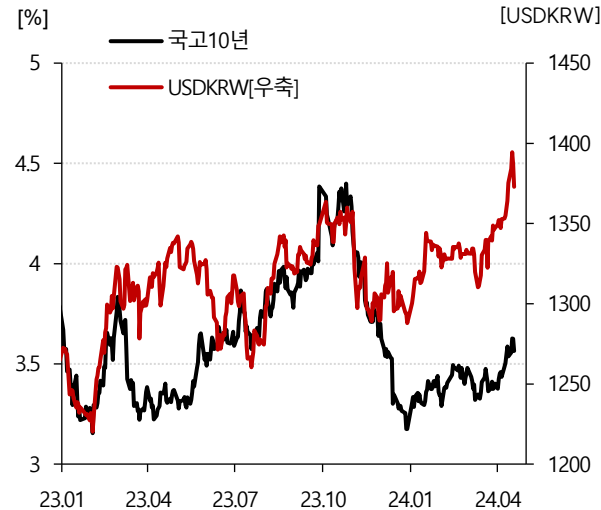
- 4월 발표된 미국의 경기호조를 반영하는 매크로 지표는 이제 금리에 반영. 이탈한 외국인 돌아오며 강세 전망
 - 미국의 경기 호조 지표로 FOMC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6월→7월 → 9월로 후퇴하며 시장금리 상승
 - 이란-이스라엘 갈등으로 지정학 리스크 부각과 유가 상승 압력 부담으로 시장금리는 시장 투자자 예상치를 상회. 향후 이스라엘의 보복과 보복 방법 등에 따라 유가 상승 압력 존재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으로 판단. 이스라엘의 대규모 보복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없을 것으로 예상
 - 환율 및 유가 되돌림 나타나며 금리 고점 확인한 것으로 판단. 중장기 관점의 투자자라면 매수 기회로 판단
 -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연내 1회(9월 예상)까지 후퇴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 상승 가능성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미국 금리 상승과 지정학 리스크로 이탈한 외국인 투자자 돌아올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른 금리 하락 예상

유가와 미국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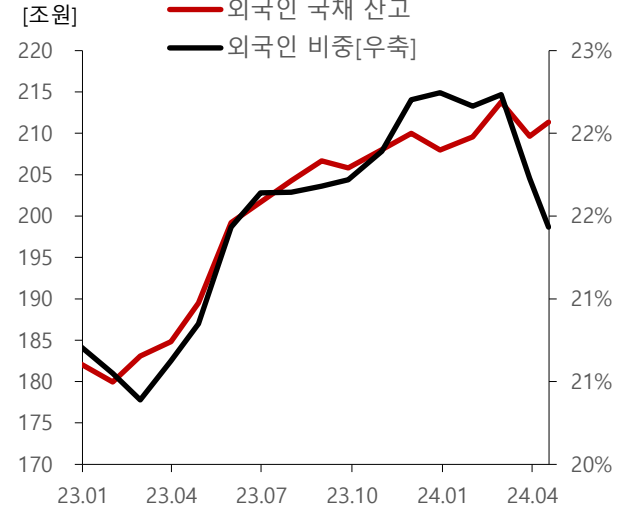
자료 : 인포맥스, SK증권

원달러 환율과 한국채 금리



자료 : 인포맥스, SK증권

외국인의 국고채 잔고 추이 및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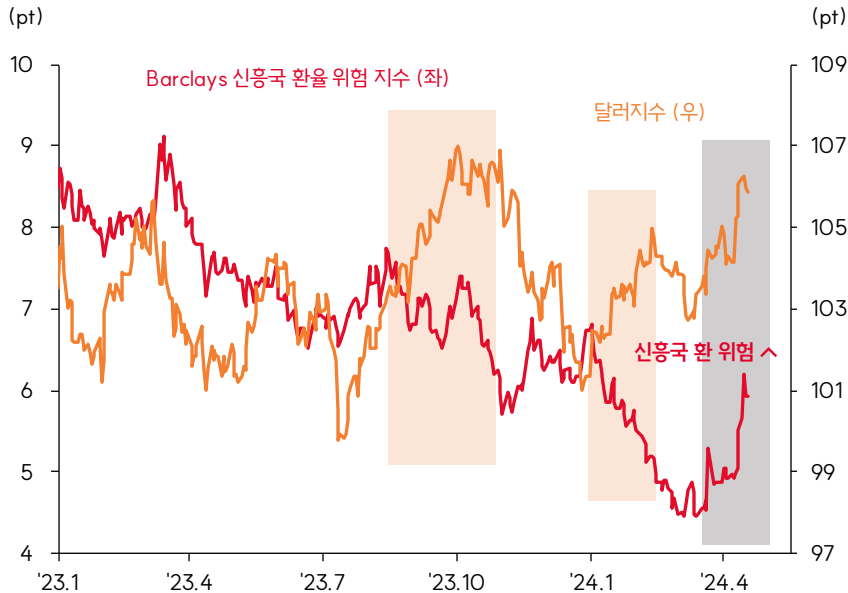


자료 : 인포맥스, SK증권

남아있는 위험을 존중하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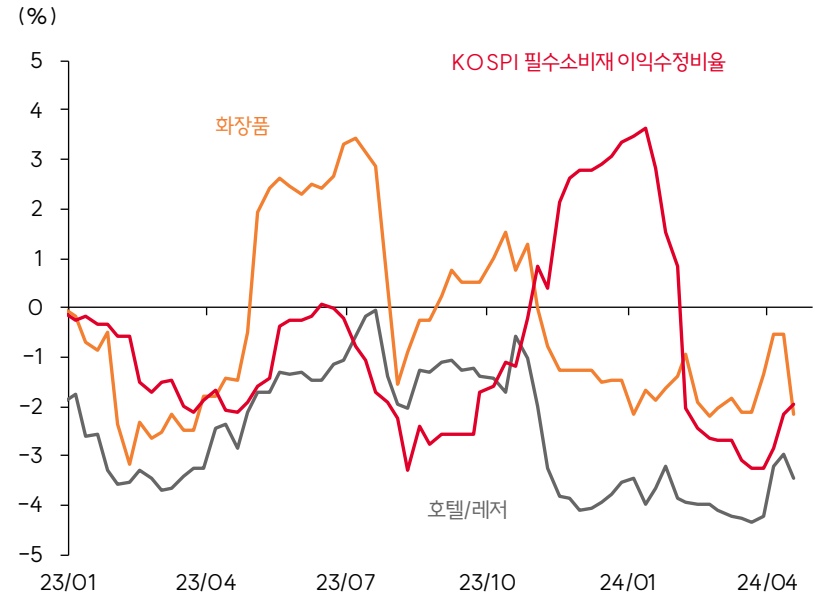
- 완전히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나지는 않은 상태. 일부 방어적 포지션을 유지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
 - 연초 이후 달러가 계속 상승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위험하지 않았던 것은 신흥국 환 위험은 달러와 반대로 오히려 낮아졌기 때문. 그러나 최근 4월 이후, 특히 전주부터의 달러 강세는 신흥국 환 위험 확대를 수반.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 요인들이 가격에 반영이 많이 되어 왔지만 여전히 경제 대상인 것은 사실. 즉, 위험 선호 심리가 완전히 살아났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애매하다는 것
 - 국내 증시가 하락하면서 기술적 매력도 높아진 자리에서 그래도 강력하게 반등에 성공. 다만 현재 리스크 지표들이 아직 완전히 안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내 일부 방어적 포지션 구축해 놓을 필요는 있을 듯 함. 호텔레저, 화장품, 필수소비재가 비경기민감 업종 가운데 1분기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이었는데, 이 중 호텔레저, 화장품은 FY1 이익수정비율 소폭 둔화되었고 필수소비재는 상대적으로 양호. 필수소비재의 경우 최근 유가, 환율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높아지며 식료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것도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음

최근 달러 강세는 신흥국 환 위험 확대를 수반. 아직 전부 진정되지는 않은 상태



자료 : Bloomberg, SK증권

비경기민감 업종 이익수정비율 - 필수소비재가 최근에는 가장 양호



자료 : Quantiwise, SK증권



SUN MON TUE WED THU FRI SAT

Pa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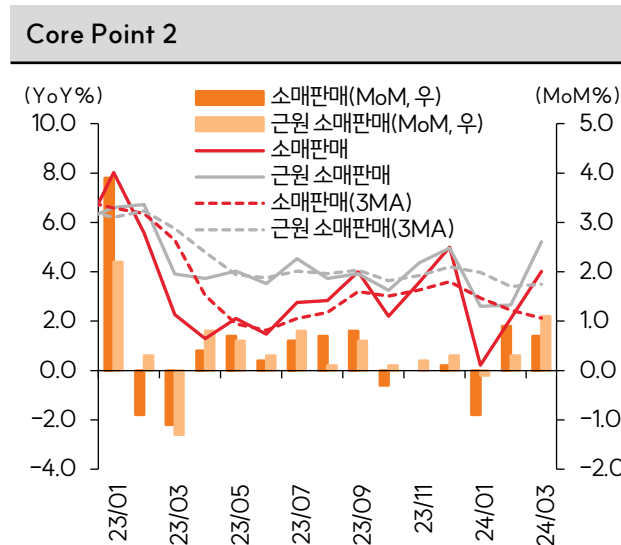
그림으로 보는 Top to Bottom

1. Macro Core 3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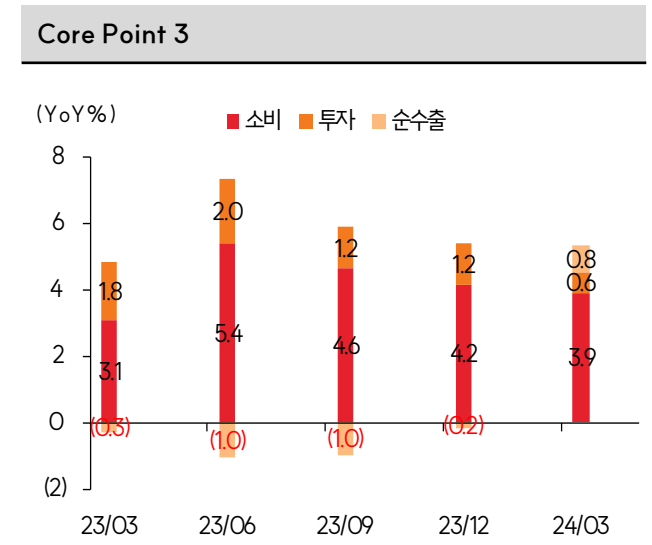
- **Core Point 1: 이란, 이스라엘 본토 대규모 공습하며 양국 간 확전 우려 증대**
 - 이란, 이스라엘의 시리아 내 자국 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으로 드론 170기·탄도 미사일 120발 등 동원해 이스라엘 본토 대규모 공습 개시. 아이언돔 등 대공 방어망 가동으로 사상자는 없었으나 이란-이스라엘 확전 우려로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되어 투자 심리에 악영향 끼쳐
- **Core Point 2: 미국 3월 소매판매, 예상 크게 상회하며 양호한 소비 여력 보여줘**
 - 미국 3월 소매판매, MoM +0.7%로 예상(+0.4%) 상회. 전월 상승(+0.9%) 대비 상승폭 감소했으나, 이는 상향 조정된 것(+0.6%→+0.9%). 근원 소매판매는 MoM +1.1%로 예상(+0.5%) 및 전월(+0.6%) 대폭 상회. 무점포(온라인, MoM +2.7%)와 일반 점포(MoM +1.1%)가 서프 이끌어
- **Core Point 3: 중국 1분기 GDP 성장률, 예상 상회.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 증대**
 - 1분기 중국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5.3% 상승해 23년 4분기(5.2%)와 예상(4.8%) 상회. 소비, 투자, 순수출 항목 중에서 순수출 기여도가 22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에 성공

Core Point 1		
일자	사건	결과
1월 3일	아프간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IS-K, 이란 케르만 순교자 묘역 폭탄 테러	이란 추모객 94명 사망, 284명 부상
1월 15일	이란 혁명수비대, 이라크 내 이스라엘 첩보기관 '모사드' 첩보시설 폭격	이스라엘 모사드 요원 5명 사망
3월 31일	이스라엘,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 공습	쿠르드군 사령관 등 이란 영사관 직원 7명 사망
4월 13일	이란, 드론 170기·탄도 미사일 120발 등 동원해 이스라엘 전역 공습	이스라엘 아이언돔 등 대공 방어 시스템 가동(약 1조 8,000억원 소모)

자료 : 언론 종합, SK증권



자료 : Bloomberg,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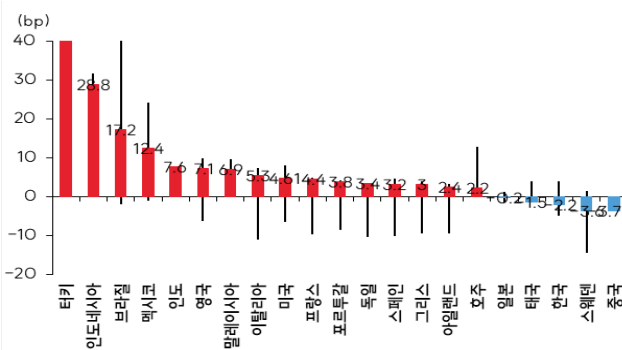
자료 : CEIC, SK증권

2. FICC Core 3 Point

- 주간 글로벌 금리는 상승. 파월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시사 및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금리 인상 가능 발언이 더해지며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6.1bp 상승해 4.6%대 기록
- 유가는 미국의 압박에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에 대한 보복 수준을 자제하고 있다는 소식에 WTI 기준 80달러 초반대로 하락. 환율은 달러 강세와 지정학 리스크 증대, 외국인 배당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1400원까지 갔으나 이후 한미일 3국의 구두개입으로 되돌림 보이며 1370원대로 하락

금리

1) 글로벌 금리 주간 상승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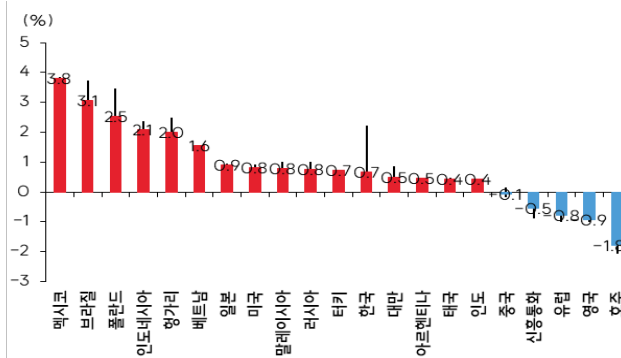
2)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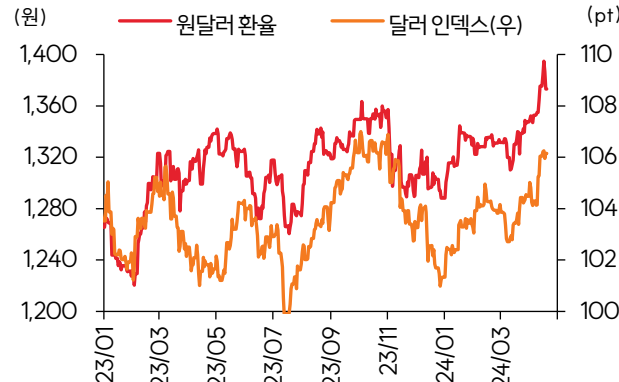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SK증권

환율

1) 글로벌 달러대비 주간 절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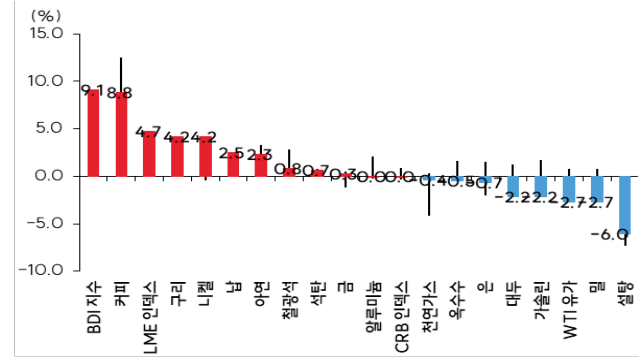
2) 원달러 환율 및 달러 인덱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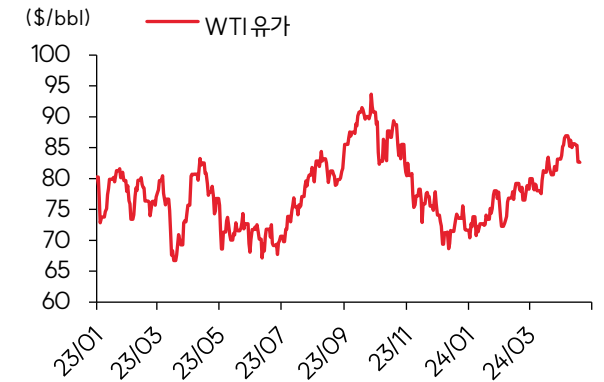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SK증권

원자재

1) 주요 원자재 주간 상승률



2) 국제유가 변동(WTI 기준)



자료 : Bloomberg, SK증권

3. 위험과 자산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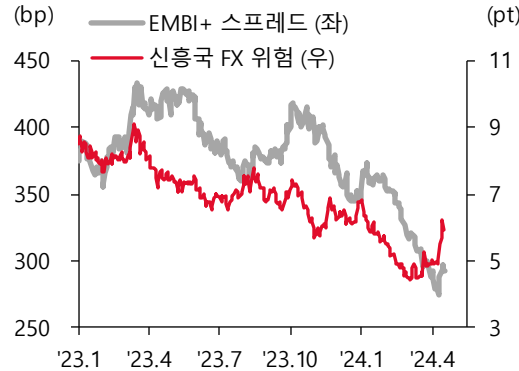
- 매크로 위험이 크게 상승. 신흥국 환율 위험도 크게 상승. 이러한 상황은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와 증시 부진을 수반. 예상보다 미국 금리가 크게 상승하며 달러가 강해졌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확대되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진 것으로 보임
- 그래도 주 중반 이스라엘이 對이란 보복 공격을 계획했다가 미국의 만류에 연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유가 하락하며 위험 회피 심리 일부 되돌림 나타났음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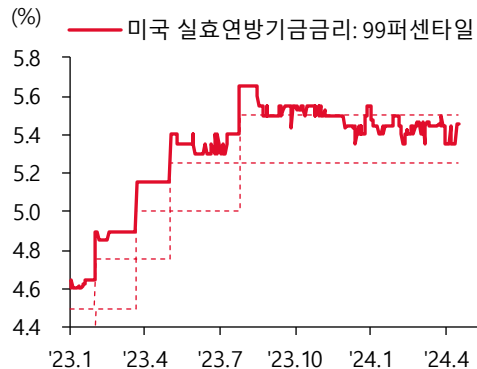
(1) 금융시장



(2) 신흥국



(3) 단기자금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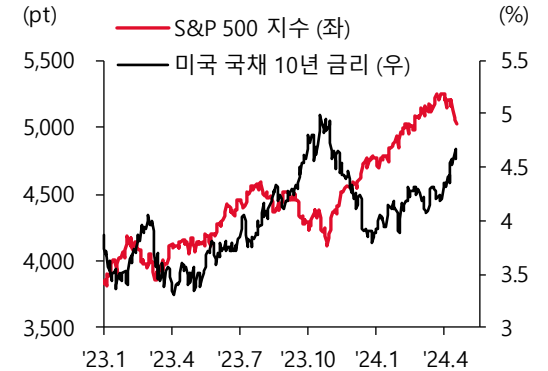


(4) 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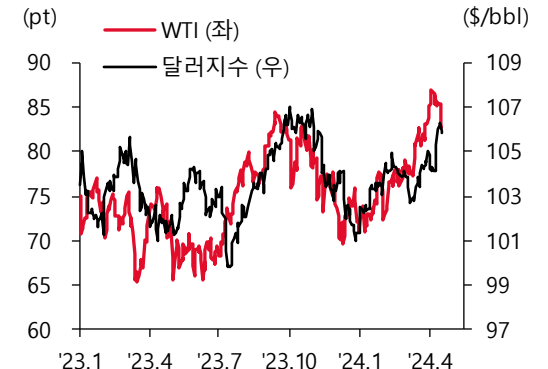


자산가격

(1) 금리 vs 주식



(2) 원자재 vs 달러



4. 글로벌 주식시장: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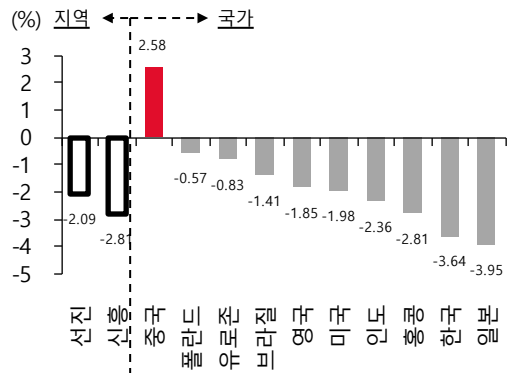
- 주요국 증시 크게 하락. 베타 높은 신흥국 증시가 선진국보다 부진한 양상 띄었음. 미국은 로우볼인 필수소비재, 유틸리티, 헬스케어가 방어주로서 역할 했음
- 주요국 가운데 중국만 전주 대비 상승한 점이 눈에 띄는데, 최근 달러 강세 전개되면서 중국에서 빠져나갔던 외국인 자금들이 다시 귀환하며 증시 상승을 견인. 증감회가 자본시장 개혁안과 관련해 배당, 상장 폐지 문제에 대해 직접 해명한 것 투자심리에 긍정적 영향 미친 것으로 보임

주식: 지역/국가

(1) 글로벌 증시 추이 및 선진 vs 신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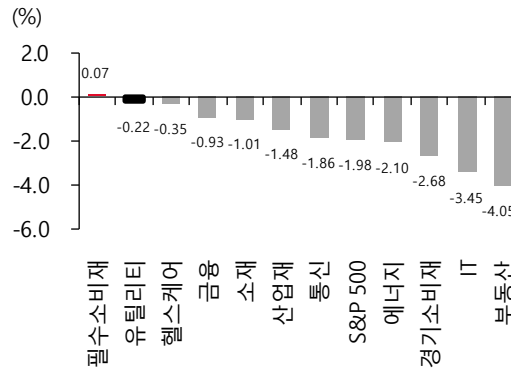


(2) 국가별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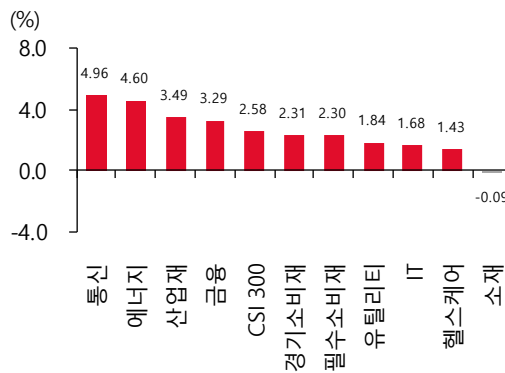


주식: 섹터

(1) 미국 S&P 500 주간 섹터별 수익률



(2) 중국 CSI 300 주간 섹터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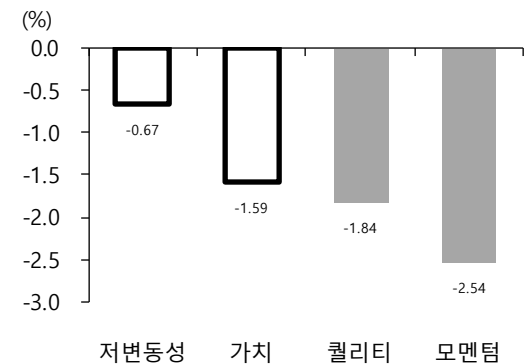


주식: 스타일

(1) 미국 및 신흥 증시: 성장 vs 가치



(2) 스타일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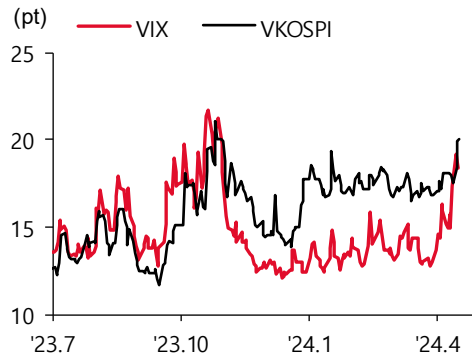


5. 글로벌 주식시장: 심리와 기술적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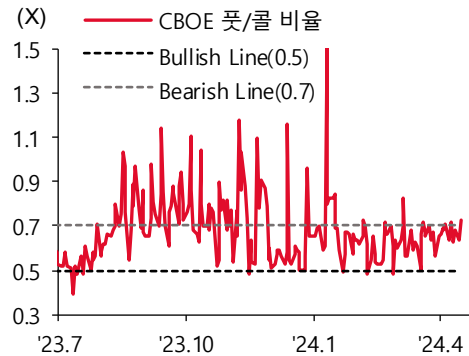
- 미국 증시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VIX 지수가 작년 10월 금리 급등과 섰다운 이슈 불거졌을 때 만큼 크게 상승. 증시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 풋/콜 비율도 bearish line 계속 붙어 있는 양상. 미국 증시에 국내 증시 모두 조정 받는 과정에서 RSI가 거의 과매도 시그널을 가리키는 수준까지 하락
- 결국 기술적 반등 가능해 진 위치에서 국내 증시는 18일 크게 상승

심리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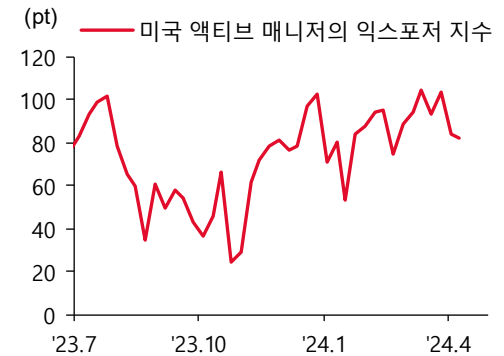
(1) 변동성 지수: 미국 vs 한국



(2) 미국 개별 주식 옵션 거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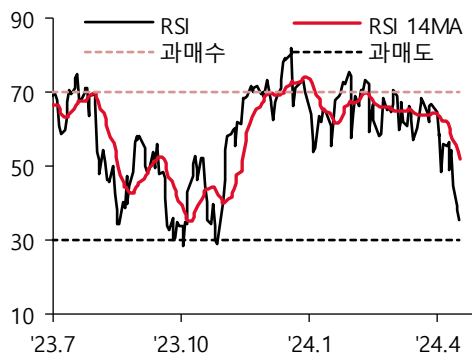


(3) 미국 액티브 매니저 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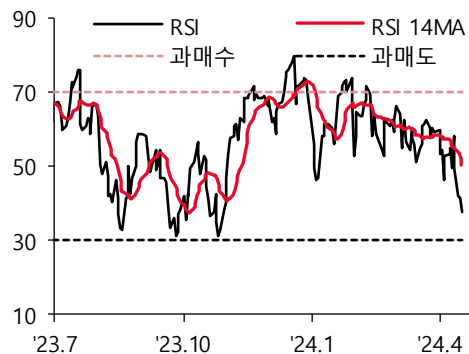


기술적 지표

(1) RSI: 미국 S&P 500



(2) RSI: 미국 나스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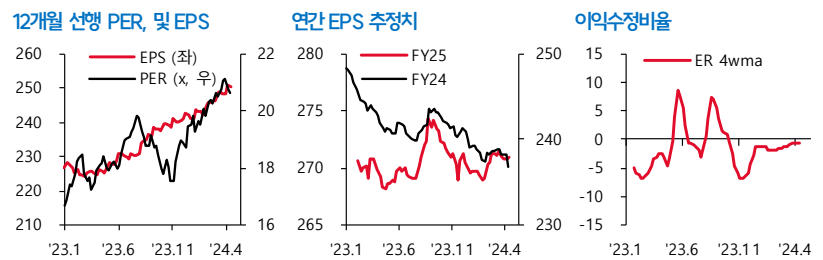
(3) RSI: 한국 KO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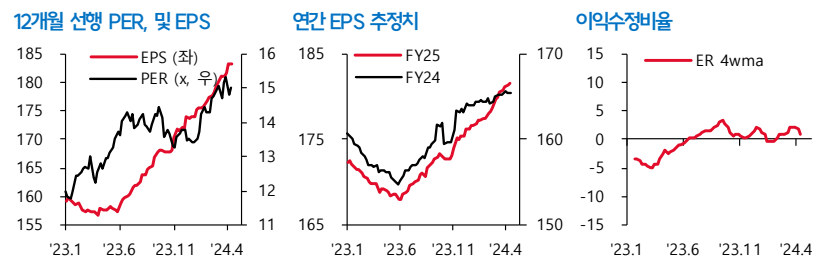
6. 글로벌 주식시장: 이익과 밸류에이션

- 3월 중국 실물 경제지표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CSI 300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 이어졌음. 미국 실적 시즌 접어들며 '일부' 기업 실적 부진 확인되었고 전망에 대해서도 이전만큼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지는 않으면서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 되었음. 다행히 국내 이익 추정치는 다시 반등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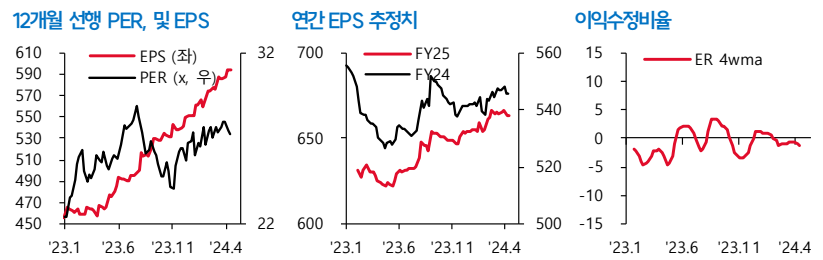
미국 S&P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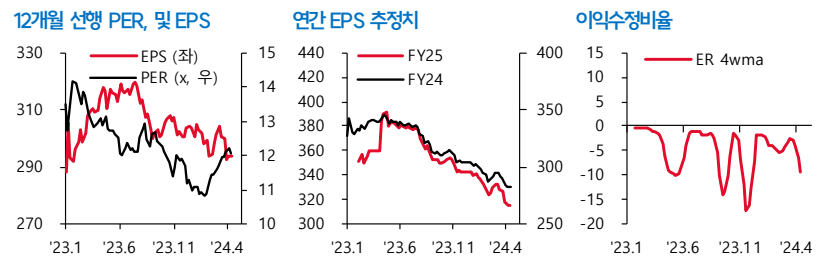
일본 TOP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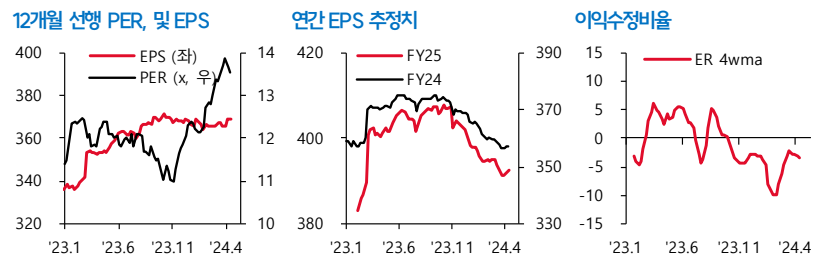
미국 나스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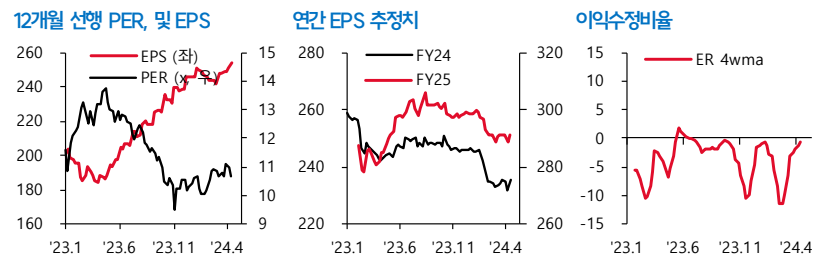
중국 CSI 300



유로존 Stoxx 50



한국 KO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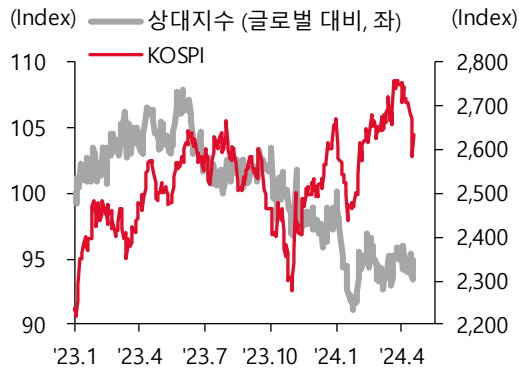


7. 국내 주식시장: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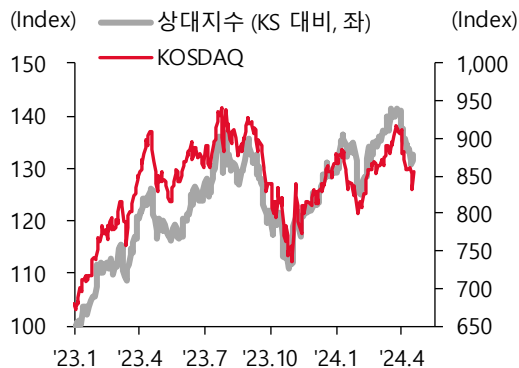
- 국내 증시는 위험자산 회피 심리 강화로 외국인 자금 유출되며 2,600선을 하향 이탈하기도 했음. 기술적 매력 높아진 상태에서 위험 소폭 완화되자 반등 성공
- 증시 하락 구간에서는 모멘텀 하위 업종들이 성과 우위를 보였음. 그 중에서도 특히 화장품 업종은 1분기 실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기에 주목 받았던 것으로 보임. 모멘텀 상위 업종들의 주간 조정 폭이 컸으나 목요일 증시 반등하면서 이들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분위기

시장

(1) KOSPI 지수 (+글로벌 증시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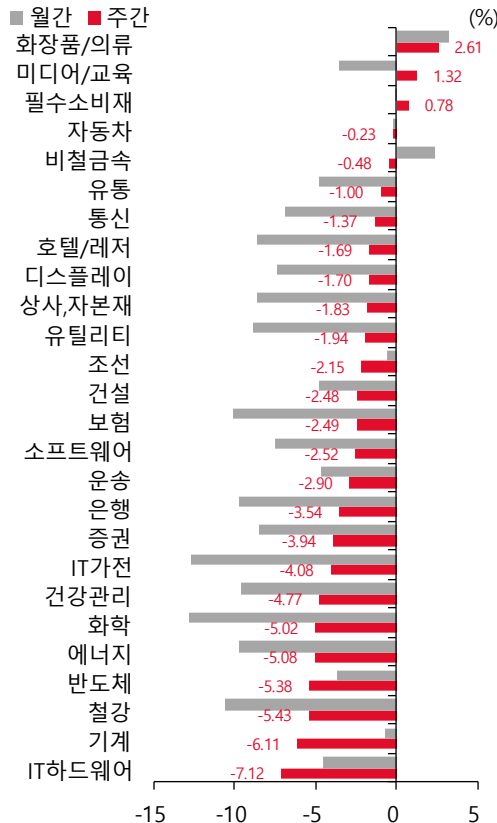


(2) KOSDAQ 지수 (+ KOSPI 지수 대비)



섹터

KOSPI 섹터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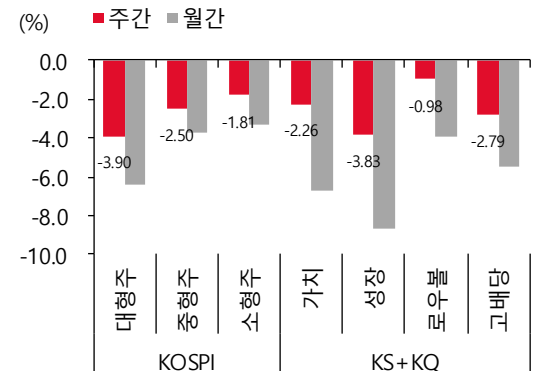


스타일

(1) 성장 vs 가치



(2) 스타일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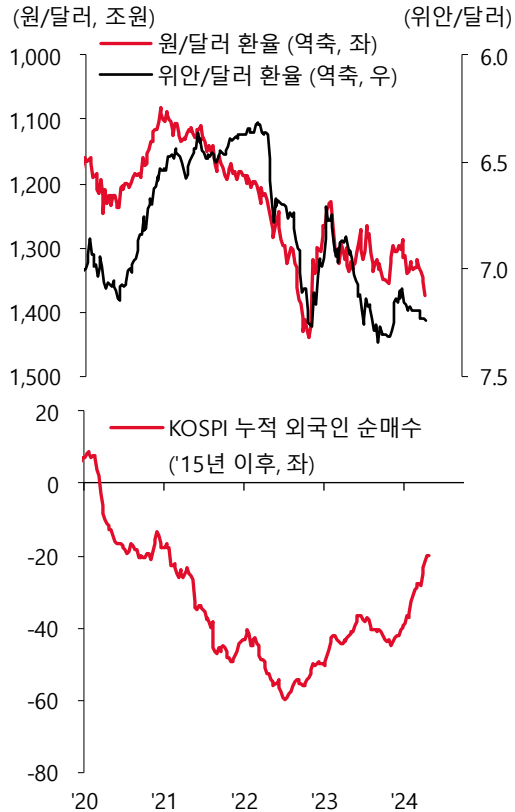


8. 국내 주식시장: 수급

- 주 초반 KOSPI 시장에서 외국인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 기록. 인플레 압력 높아지는 모습 확인되며 FOMC에 대한 경계감 확대되던 3월 중순 이후 처음. 그러나 순매도 규모는 크지 않았고 결국 목요일 증시 반등하면서 외국인이 재차 국내 증시 매수에 나서며 주간 합산으로는 970억원 순매도한 것으로 확인됨
- 외인은 결국 다시 이익 모멘텀이 양호한 기계, 반도체, 자동차를 강하게 샀고 지주, 은행과 같은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업종도 다시 보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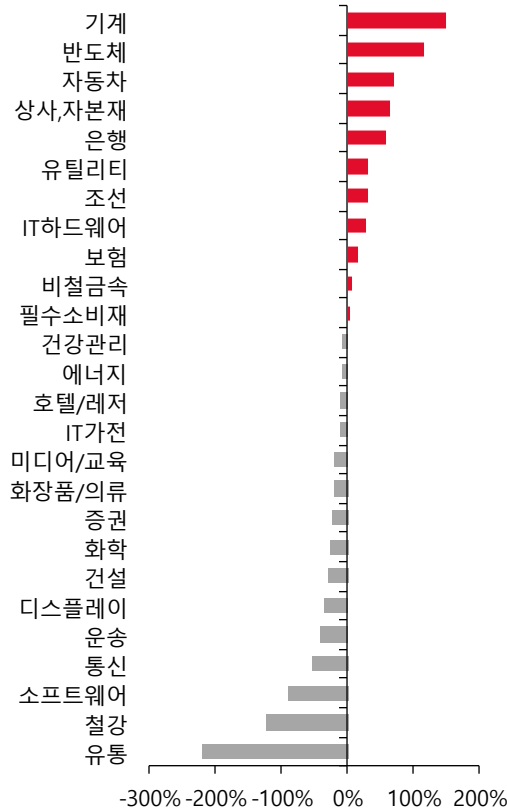
수급: 시장

KOSPI 외국인 순매수와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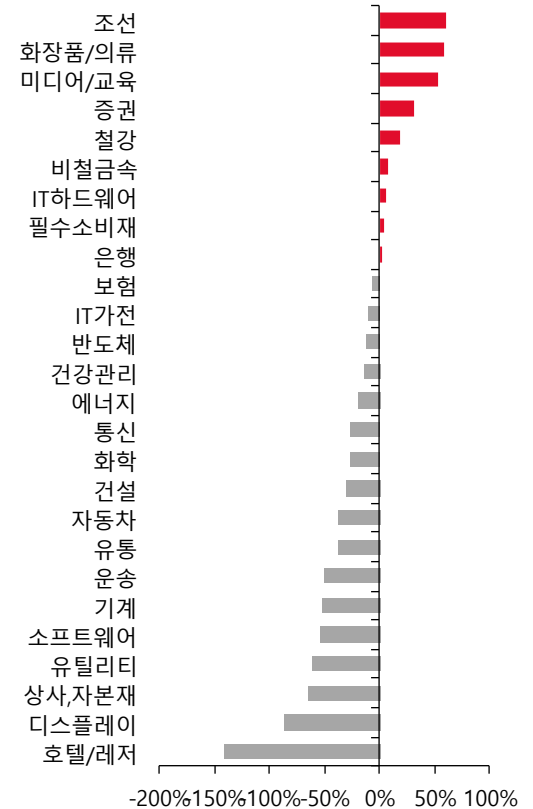


수급: 섹터

1) 주간 KOSPI 섹터별 외국인 순매수 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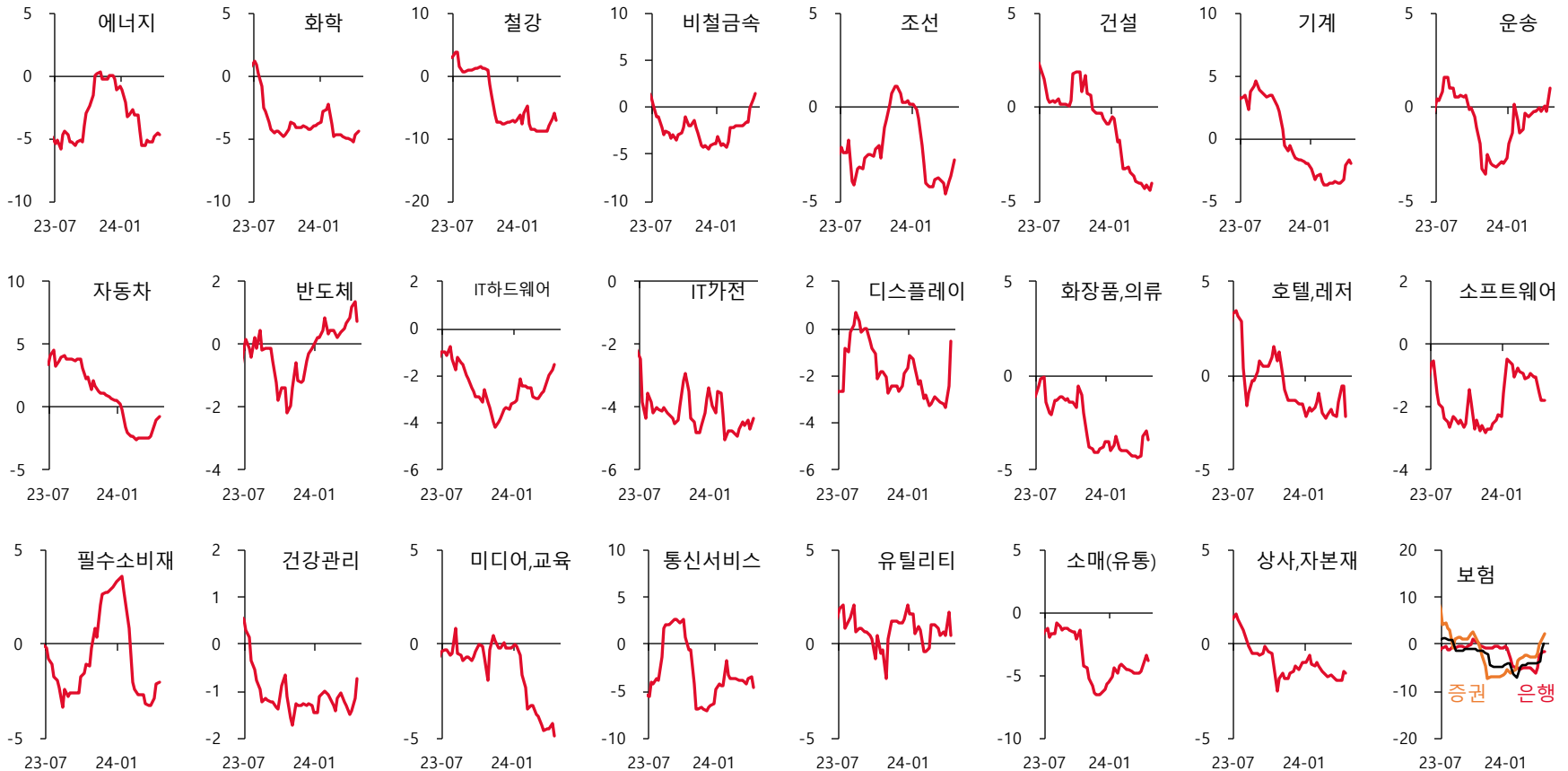
2) 주간 KOSPI 섹터별 기관 순매수 강도



9. 국내 주식시장: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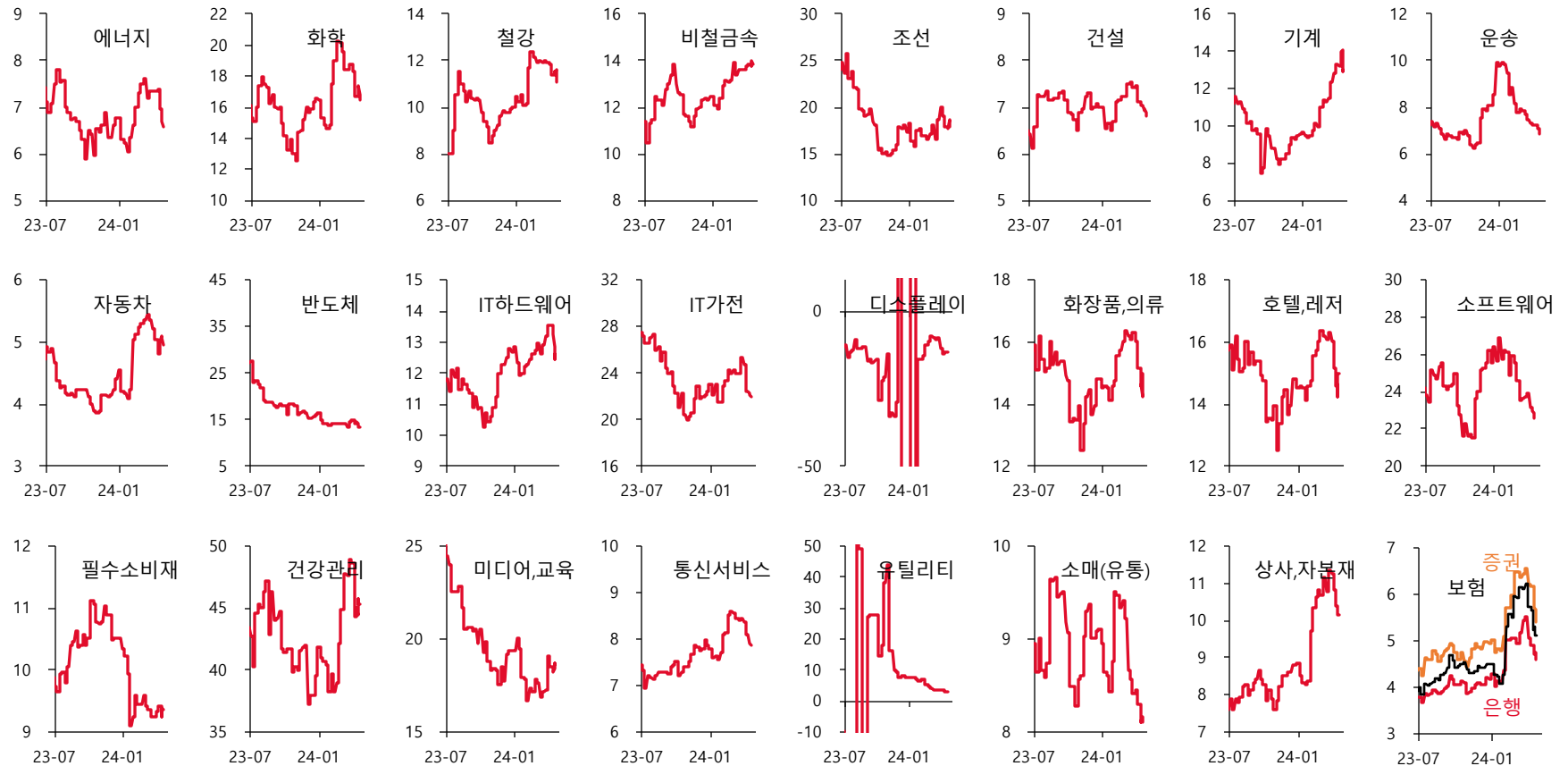
- 일부 이익 모멘텀 개선되던 업종들, 이익수정비율 재차 반락하는 양상 관찰. 철강, 기계, 반도체, 화장품, 호텔레저가 여기에 해당
- 비철금속, 운송, 증권 이익수정비율이 (+) 권에서도 계속 개선되는 중. 이익 추정치 상향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는 것
- 디스플레이, 건강관리 이익수정비율이 (-) 권에서 급격히 반등 중

KOSPI 섹터별 이익수정비율 (%)



10-1. 국내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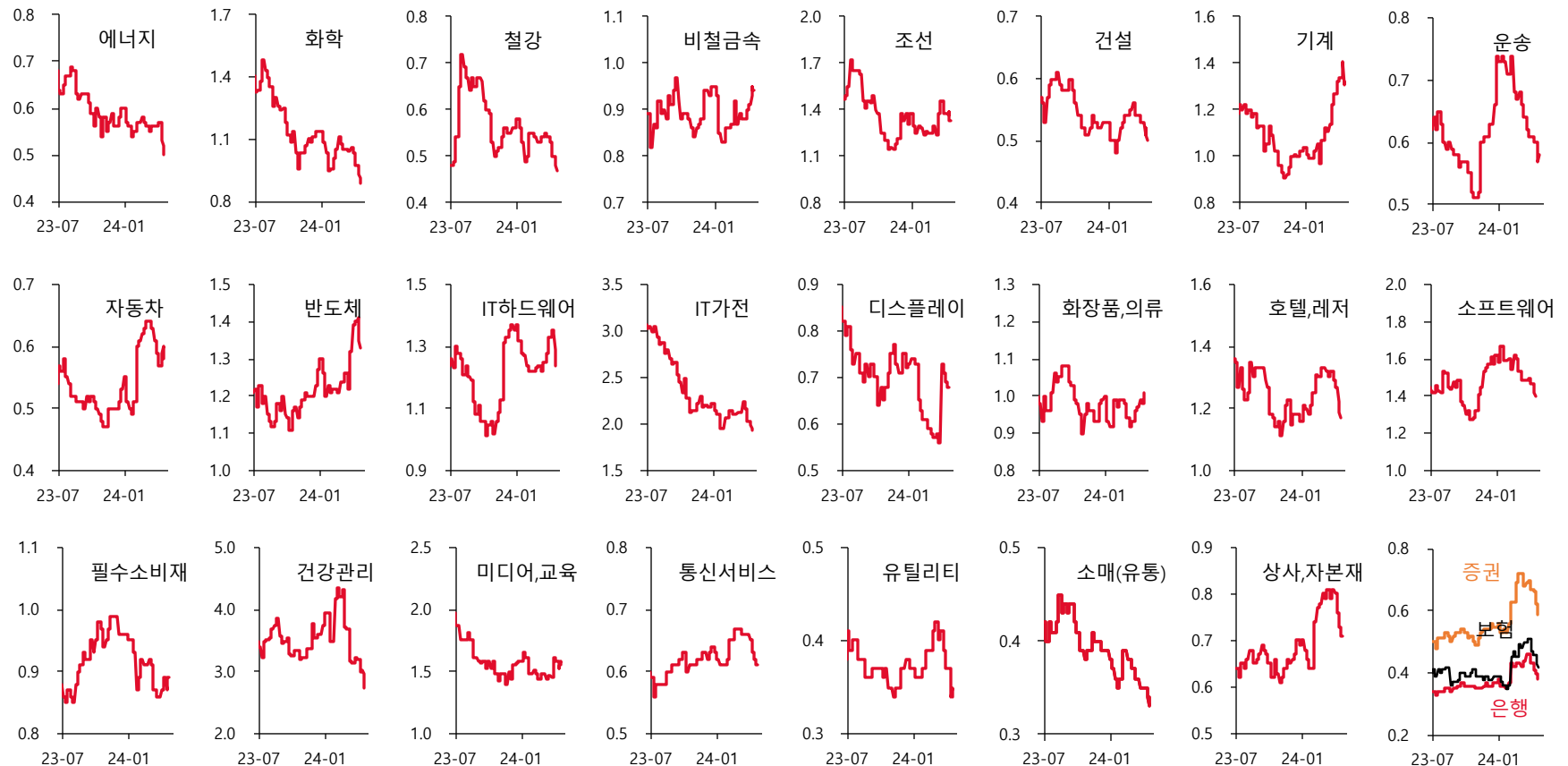
KOSPI 섹터별 12MF PER (X)



10-2. 국내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 증시 조정 받으면서 대부분 업종에서 밸류에이션 매력 크게 부각되기 시작. 에너지, 화학, 철강, IT가전, 건강관리, 유통의 경우 '23년 하반기 이후 밸류에이션 최저점 경신. 에너지/화학/철강/IT가전은 2차전지 종목들 주가 조정 때문
- 이익 모멘텀이 양호한 금융 업종, 밸류업 정책에 따른 PBR 상승 분 대부분 되돌림 있었음. 투자 매력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KOSPI 섹터별 12MF PBR (X)



11. 국내 주식시장: 종목

- 전주에 이어 금주에도 이익 모멘텀 상위 종목에서는 산업재, 특히 기계, 방산 업종 내 종목들이 다수 포진. 이 종목들 중 최근 상승 폭 컸던 종목들은 증시 조정 받으면서 외국인 매도에 의해 크게 하락하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익 모멘텀은 좋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 삼양식품, CJ제일제당과 같은 음식료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 개선이 눈에 띈. 아직 주식시장에 불편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방어주 중 이익 모멘텀 양호한 기업들 선별해 포지셔닝 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임

KOSPI 200 주간 종목 동향: 이익 모멘텀 상위

순위	종목코드	종목명	섹터	시총 (조원)	12m fwd. EPS (x)	투자의견	목표주가 (원)		이익수정비율 (%)		주가 수익률 (%)			수급주체별 주간 순매수강도: 코스피 종목 내 백분율 (높을수록 수급 강함)		
							현재	-1W	현재	-1W	1W	1M	YTD	외국인	기관	개인
1	A002380	KCC	건설,건축관련	2.09	9.18	매수	350,000	350,000	33.3	0.0	-2.7	-14.2	3.1	84%	23%	46%
2	A064350	현대로템	기계	4.49	16.55	매수	43,731	43,731	42.9	42.9	-1.7	31.7	54.7	86%	34%	19%
3	A267260	HD현대일렉트릭	기계	8.62	24.59	매수	217,182	217,182	27.3	27.3	3.0	54.6	190.8	99%	1%	95%
4	A003230	삼양식품	필수소비재	2.02	13.11	매수	280,000	280,000	66.7	66.7	15.2	36.1	24.3	86%	26%	14%
5	A039490	키움증권	증권	3.32	4.9	매수	148,538	144,000	33.3	25.0	2.2	-3.5	27.0	52%	89%	18%
6	A010120	LS ELECTRIC	기계	4.65	19.64	매수	131,300	131,300	0.0	-10.0	21.6	70.9	111.8	98%	4%	7%
7	A005380	현대차	자동차	48.38	5.19	매수	304,348	304,348	30.4	30.4	-4.2	-4.7	13.5	99%	1%	3%
8	A01245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사,자본재	11.44	18.81	매수	254,000	254,000	6.7	6.7	5.6	23.4	81.5	98%	88%	2%
9	A000150	두산	상사,자본재	2.33	14.18	매수	178,750	178,750	0.0	0.0	-7.1	-13.0	50.2	8%	23%	92%
10	A097950	CJ제일제당	필수소비재	5.00	9.19	매수	435,000	435,000	35.7	21.4	5.4	13.1	2.5	90%	94%	5%
11	A079550	LIG넥스원	상사,자본재	3.48	16.62	매수	183,333	183,333	0.0	0.0	-4.9	-3.2	21.2	70%	14%	83%
12	A009970	영원무역홀딩스	화장품,의류,완구	1.13	3.56	매수	120,000	106,000	0.0	0.0	-1.9	-8.2	6.7	51%	73%	33%
13	A138040	메리츠금융지주	증권	14.85	6.41	매수	99,000	99,000	20.0	20.0	-5.5	-7.4	29.1	91%	73%	8%
14	A103140	풍산	비철,목재등	1.69	8.91	매수	59,083	59,083	0.0	0.0	1.5	26.9	54.1	66%	26%	77%
15	A020150	롯데에너지머티리얼	IT하드웨어	1.94	43.86	매수	54,143	54,143	0.0	0.0	-9.9	4.5	-0.1	85%	49%	16%
16	A016360	삼성증권	증권	3.21	4.96	매수	49,000	49,000	23.1	7.7	-3.9	-12.5	-6.5	16%	15%	89%
17	A078930	GS	에너지	3.93	2.79	매수	61,667	61,667	16.7	16.7	-12.7	-13.9	3.4	31%	33%	74%
18	A009150	삼성전기	IT하드웨어	10.96	16.69	매수	186,950	186,950	15.0	15.0	-6.3	1.0	-4.2	5%	5%	97%
19	A012330	현대모비스	자동차	22.01	5.76	매수	304,091	304,091	0.0	0.0	-6.4	-12.3	-0.8	56%	7%	60%
20	A300720	한일시멘트	건설,건축관련	0.87	4.35	매수	17,300	17,300	100.0	100.0	0.4	3.8	-2.2	45%	76%	36%

주: 코스피 200 지수 내 투자의견 중립 이상 종목 중 1. 이익수정비율(1M) 레벨 높고, 2. 이익수정비율(1M) 전주대비 개선된 폭 높고, 3. 목표주가 상향률(1M) 높은 종목 순)

자료: SK증권



Part 3.

**주간
Check Poin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주간 경제 캘린더

일자	주요 지표 및 일정	실제	예상	이전
4/15 (월)	미국 소매판매·근원 소매판매 (MoM%) (3월)	0.711	0.4 0.5	0.9 0.6
	미국 뉴욕 제조업 (pt) (4월)	-14.3	-5.2	-20.9
	중국 MLF 1년물 금리 (%) (4월)	2.50	2.50	2.50
	유로존 산업생산 (MoM%) (2월)	0.8		-3.0
일정		실적	찰스슈왑, M&T 은행	
4/16 (화)	미국 산업생산·제조업 생산 (MoM%) (3월)	0.4 0.5	0.4 -	0.4 1.2
	미국 건축허가·주택착공 (백만건) (3월)	1.458 1.321	1.514 1.480	1.524 1.521
	중국 GDP (YoY%) (1Q)	5.3	5.0	5.2
	중국 산업생산·소매판매 (YoY%) (3월)	4.5 3.1	6.0 5.1	7.0 5.5
	중국 실업률 (%) (3월)	5.2	5.2	5.3
	독일 ZEW 경기기대 (pt) (4월)	42.9	35.9	31.7
일정		실적	BofA,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유나이티드헬스, 존슨앤존슨, 유나이티드항공, 컨템포러리애펜, US뱅크프, PNC파이낸셜, 뉴욕멜론은행	
4/17 (수)	유로존 소비자물가·근원 소비자물가 (YoY%) (3월)	2.4 2.9	2.4 2.9	2.6 3.1
	일본 수출 (YoY%) (3월)	7.3		7.8
	영국 소비자물가·근원 소비자물가 (YoY%) (3월)	3.2 4.2	3.1 4.1	3.4 4.5
	일정	연준 페이지북	실적	ASML, 애봇, 프로그레시브, CSX, 볼보, 에퀴팩스
4/18 (목)	미국 필라델피아연은 제조업 활동 (pt) (4월)	15.5	1.5	3.2
	미국 기준주택판매 (백만건) (3월)	4.19	4.20	4.38
	미국 CB 경기선행 (MoM%) (3월)	-0.3	-0.1	0.1
	일정		실적	TSMC, 넷플릭스, 인투이티브, 아메리칸항공, 블랙스톤, 엘리번스 헬스, ABB, 인포시스
4/19 (금)	일본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 (YoY%) (3월)		2.7 2.7	2.8 2.8
	일정		실적	P&G,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일자	주요 지표 및 일정(예정)	예상	이전
4/22 (월)	중국 LPR 1년물·5년물 금리 (%) (4월)	3.45 3.95	3.45 3.95
	일정	중국 LPR 결정	실적
4/23 (화)	미국 신규주택판매 (천건) (3월)		662
	미국 S&P글로벌제조업 PMI (pt) (4월)		51.9
	미국 S&P글로벌서비스업 PMI (pt) (4월)		51.7
	유로존 마켓 서비스업 PMI (pt) (4월)		51.5
	독일 마켓 제조업 PMI (pt) (4월)		41.9
	한국 생산자물가 (YoY%) (4월)		1.5
일정	미국채 2년물 입찰	실적	테슬라, 비자, GM, 펩시코, 록히드 마틴, 텍사스인스트루먼트, UPS, 스포티파이
4/24 (수)	미국 애플랜타 연은 GDPNow (QoQ연율%) (1Q)	2.9	2.9
	미국 내구재수주·근원 내구재수주 (MoM%) (3월)		1.30 3
	독일 Ifo 기업환경 (pt) (4월)		87.8
	한국 소비자신뢰 (pt) (4월)		100.7
일정		실적	메타, IBM, 퀄컴, 보잉, 써모피셔사이언티픽, 램리서치, AT&T, 미디어텍, 포드
4/25 (목)	미국 GDP (QoQ연율%) (1Q)		3.4
	독일 Gfk 소비자동향 (pt) (5월)		-27.4
	한국 GDP (YoY%) (1Q)		2.2
	한국 제조업 기업경기실사 (pt) (5월)		74
일정	중국 상하이오토쇼(~27)	실적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인텔, 머크, 아스트라제네카, 스타벅스, S&P글로벌, 컴캐스트, 키언스, 질리어드, 에퀴노어
4/26 (금)	미국 PCE물가·근원 PCE물가 (YoY%) (3월)	2.6 2.8	2.5 2.8
	미국 PCE물가·근원 PCE물가 (MoM%) (3월)	0.3 0.3	0.3 0.3
	미국 미시간대 5년 기대인플레이(잠) (%) (4월)		3.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기대(잠) (pt) (4월)		77.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잠) (pt) (4월)		77.9
	일본 BOJ 통화정책회의 (%) (4월)	0.10	0.10
일정	일본 BOJ 통화정책회의	실적	엑손모빌, 웨브론, 애비, 토탈에너지스